

공동체 소식



주님 봉헌 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교회와 사회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 미사 : 2/7(금) 오전 10시, 십자가의 길(미사 후)
- 성모성심 미사 : 2/8(토) 오전 10시, 묵주 기도(미사 30분 전)

구역 모임

- 1구역(I-435 기준 N.) : 정석원 라파엘 가정 12317 W. 102nd st. Lenexa KS 66215
  - 2구역(143rd 기준 N.) : 김도영 가정 14205 Rosehill st. overlandpark KS 66221
  - 3구역(143rd 기준 S.) : 김병철 베네딕토 가정 15304 Foster st. overlandpark KS 66223
- ☞ 구역 모임은 2/8(토) 오후 7시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견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견진교리에 앞서 대상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1210항 ~ 1321항을 필사하여 2/28(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성지 순례 모집

- 일시 : 4/22(화) ~ 4/26(토) 4박5일
- 장소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기타

- 전례회의 : 2/9(일) 오후 1시, 회관
- 맨하턴 공동체 미사 : 2/15(토) 오전 11시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21	26	156/155	39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중 복사
금주	문석찬(요 셉)	이우영(가브리엘)
	문호진(안토니오)	이원준(요 한)
차주	고영방(스테파노)	차호섭(요 셉)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정준구(파비아노) 정병훈(보니파시오)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차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배복선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백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6	95명	444불	780불
이지혜, 박동희, 양경직, 김호원, 주영길(총 5세대)			

주님 봉헌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2월 2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우리는 이월의 첫 주일을 주님 봉헌 축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각별한 봉헌의 삶을 선택한 수도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소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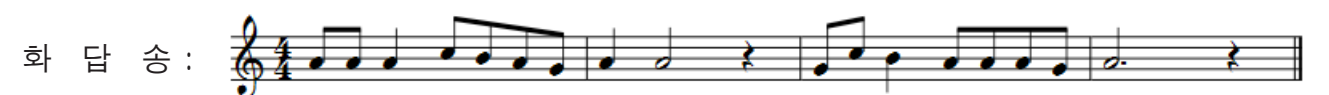
## 성화해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4,19-20)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말라 3,1-4 <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



◎ 만 군 의 주 님 이 야 말 로 영 광 의 임 금 이 시 다

○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시려 하시나니. ◎

○ 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굳세고 능하신 주님이시다.  
싸움에 능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시려 하시나니. ◎

○ 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만군의 주님이야말로,  
영광의 임금입니다. ◎

제 2 독 서 : 히브 2,14-18 <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 음 : 루가 2,22-40(또는 2,22-32) <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 쉐 마

## “봉헌생활이란?”



예수 성탄 후 40일째인 오는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이자 봉헌생활의 날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7년 주님 봉헌 축일을 ‘봉헌생활의 날’을 제정한 것은 온 세계 모든 봉헌생활자들, 곧 수도자들이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봉헌생활의 참뜻과 부르심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에 앞서 1996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맞아 교회와 세상 안에서 봉헌생활과 그 사명에 관한 교황 권고 「봉헌생활」을 발표, “교회 사명의 결정적 요소인 봉헌생활은 교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봉헌과 친교, 선교라는 세 측면에서 봉헌생활의 큰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다.

봉헌생활의 복음적 토대는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 동안 일부 제자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마태 17,1-9 참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헌된 삶(마태 4,18-22; 마르 1,16-20 참조)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봉헌생활의 기초를 이룬 셈이다.

이에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도록 초대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응답으로서의 수도생활은 동·서방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베네딕토 성인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형태를 갖춘 서방의 수도생활은 세속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수도생활은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청빈과 정결과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를 통해 수도자들

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도생활은 크게 관상에 전념하는 수도단체들과 ‘사도적 수도생활’을 하는 남녀 수도회들, 재속회, 사도생활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오로지 관상에 전념하는 수도회, 곧 관상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생활 전체와 모든 활동을 하느님께 대한 기도와 관상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 대한 교회의 사랑을 증언하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도적 결실을 통해 하느님 백성의 성장에 공헌한다. 활동 수도회들은 다양한 사도직과 선교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 사랑의 증인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표지가 된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 수도회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영성과 사도적 열정에 부푼 봉헌생활의 새로운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새롭고 쇄신된 형태의 봉헌생활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세속화로 치닫는 세상에서 ‘신앙의 소금’이라 할 봉헌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회와 사회는 하느님과 이웃에 자신을 완전히 봉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갈라지지 않은 마음’(1코린 7,34)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어렵다고 용기를 잃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열정으로 봉헌생활에 투신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새롭고 활성화된 봉헌생활의 영성적, 사도적 공헌을 교회와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평화신문> 1/26일자 인용 -

# 마중물

## 강도와 신경통

오 헨리의 작품 중,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잠자는 주인을 깨우며 “손들어!” 하였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 고함을 칩니다. “오른 손마저 들어!” 그래도 집주인은 왼손만 조금 더 높이 들 뿐입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 다시 “오른 손마저 들어!”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그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 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 제대로 일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위협하고는 물건을 훔쳐내는 짓을 하였던 것입

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도는 당장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잊고 신경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공포나 두려움을 잊고는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느냐, 무슨 약을 쓰느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는 서로 멋지게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지 아니한 곳에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 주셨습니다.

# ‘신앙의 해’교육자료

##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 76. 교회를 위한 성부의 심오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성부의 심오한 계획은 인간을 당신 생애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지극히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들어 높여 신적 생애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아들 안에서 이 생애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거룩한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가족’은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로 형성되고 실현되어 갑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豫表)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으며,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 강림으로 드러났고, 세말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9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